말씀제목: 응답을 위한 준비
말씀구절: 창12:1-3

들어가는 말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우리 평생에 성취되는 은혜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중요한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성경은 교히를 피로 값주고 산 곳이라고 한 이유는
2)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있는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3)(엑클레이시아 - 한명씩 개인적으로 불러내셧다)
4)언약-부모는 나를 버릴 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것을 전달한것이다.
우리주변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잘 안듣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할일은 한번씩 말씀을 툭툭 던져 보라. 어느날 들어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5)이렇게 언약을 주신 이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응답을 주실것이니까 - 무엇을 하라고 한게 아니고 언약이 되어져야 한다니까 진짜 이해가 안되는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억지로라도 하는것이
6)집중 기도 렐레이 기도같은 것이다. - 준비를 기도로만 가능하다. 영적인 일이기에 기도로만 가능하다 그 기도 중에서 영적인 역사가 있기에 가능한데 말씀이 들어와야 만 할수 있으니 진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라 임시라도 뜻을 정할수도 있겠지만 평생으로 뜻을 정할수 있다. 말씀 들어와야 가능하다 안그러면 안된다.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할것이니까 우리가 살아온 복음안에서 세월들을 돌아보라. 복음있을때와 없을때는 진짜 천지 차이이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될까 말가 한것이 있다. 사실은 쉬운것이다. 전부 영적문제이다. 사단이 알고 다 방해를 한다.

1.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 하나님의말씀 따라가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되든 안되는 해야 한다.
1)모든 피조물의 임무이자 운명이다. 안하면 안된다. 안해도 죽지는 않아, 힘들고 성경에 약속한것을 누리지는 못한다. 그런 증거를 못 보는 것이다. 운명이란 말은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2)순종했다면 완벽한 답이다. - 우리에게 진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기도응답의 근본조건이다..
3)근본조건 - 물론 그리스도가 근본이다. 누구든지 반드시 말씀중심으로살아야 한다.
말씀중심으로 안살면 자기가 제일먼저 손해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여를 해야 한다. 사역자도 되어야 한다. 복음 전하는 자도 되어야 한다. 되어 보면 자기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다.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일이다
4)아브라함은 항상 아들에 대하여 신경이 쓰이고 난 뒤에 수양, 제자사 늘 바탕에 깔려있었다. 날때부터 그렇지는 안았다. 불신앙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대하여는 그자리에서 해결했다. 이것이 몇군데 나온다. 오늘 그 첫번째이다. 그러니까 고향에 살고 있는데 가자 불러냈다. 두번째는 17장 할례를 받아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 할때 둘다 웃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시고 나서는 즉시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훌륭하다 그렇다. 불신앙이 있다 왜 응답이 없냐고, 불신앙이란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분이 별로 안좋다는것이다. 그런데 할례행하라고 하니까 딱 행했다. 당시 318명 가병들에게 할례를... 극적으로 진짜 한것이다. 그것이 창22장 아들을 바치는 것. 그때는 불신앙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불신앙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도달했다는것 아닌가 축복의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축복의 자리에 결국은 도달했다는것이다. 옛날에는 불신앙이 상당 기간이었다. 이때 했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더큰 은혜가 되었다 불신앙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언약! 나중에 축복으로 변하면 할말이 없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진짜 표본이다. 연약한 우리에게 진짜 표본이고 광야에 사는 우리에게 진짜 표본이다. 어렵던지 힘들던지 말든지 광야로 가라고 하면 간것이 아브라함처럼 한것이다. 여호수아 갈렙도 힘들었다. 그들만 힘든게 아니었다. 그런 환경속에서 그래도 나는 간다 결심에 도달하기 힘들다.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간다고 했다. 간다고 말한 그 사람들만 갔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말한대로 하신다.

2.약속의 땅 - 다른땅에 가면 안된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약속의 땅이라고 한것은 노아의 방주와도 같다. 나중에 이삭이 그 땅을 떠나려 할때 가지 말라, 여기 있으면 내가 네 아비에게 하기로 한것을 해주겠다. 그게 방주이다. 들어가면 사는것이다. 그 땅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지금도 그 땅에 있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임한다 이유는 사명의 땅이기에 여기에서 세계복음화 할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저 다민족 예배에 말씀이 요한복음 2:1-10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다.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얘기 했을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되었는데 왜 이야기 하냐고 하셨다. 그런데 결국 했다. 왜 했을까? 제법 의문이다.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마리아 아니냐 라고 해석을 했다. 마지막에 보면 그것보다 더 낳은 답이 나온다. 그 기적때문에 제자들이 주를 믿었다고 나왔다. 저는 그리 생각한다. 때가 아직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신이유는 제자이다. 예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이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하나 있다 제자이다. 그래서 공생애 전에 제자부터 먼저 뽑았다. 공생에 중에 수많은 메시지가 나온다. 수많은 기적을 배푸셨다. 이러는 목표가 제자 훈련이다.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물이 포도주 된것 같은 기적을 내신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다.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냐 창조주 아니냐 지금 당한 문제를 무엇으로 고칠것인가? 포도주를 통해서도 네 문제를 해결 할 능력이 있다. 그게 목표이다. 마리아는 여기에 대하여 중요한 신앙고백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것을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다는것을 세상 누구보다더 마리아는 확실하게 알고있었다. 그러기에 확실한 고백을 했다. 무슨 말을 하시던지 누구든지 따라가라. 그러면 답 나온다는것 알고 있다. 왜냐면 하나님 자기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는 알고있다.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와, 그래서 제자였다. 이따에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 거기에 제자를 불렀다. 첫번째 들어온 제자가 아브라함이다. 대를 이어서 제자를 나았어. 결국 요셉에게서 성취된것이다. 그 중간에 많은 이방인 제자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318명이다. 이미 그떼 세계복음화 이방인 전도,
3)그래서 약속의 땅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땅이다. 들어와서 진짜 언약되고 정말로 증인되고 사람을 살리고,
4)창26:2 하나님이 이삭을 막아섰다. 내려가지마 네가 이땅에 거주하면 내가 네 아비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 이후에 100배 열매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최고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할수 있는데 끝까지의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메신저를 세웠다는것은 하나님은 그 땅 사람들에게 너는 내 말씀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응답을 위한 준비

3.사명 - 약속 - 사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다.
1)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절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 여기에 순종해야 한다.
2)창12:2-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될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했으면 그대로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생명걸어야 한다. 그러면 성경처럼 응답 받는다. 아주 간단하다. 기도할 것은 두가지 진짜 그리스도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체잴이 되어 24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내가 손해보는게 하나도 없다는것이ㅏ. 이것이 남아있지 않고 절대로 돌아다녀 그래서 바깥은 멀쩡한데 속은 문제가 있다. 다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 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3)창12:1-20 말씀이 첫번째 성취된것이 이 본문이 그중에 한마디이다. 성경좀 읽는 인간이었는데 몰랐다. 이 안에 권세가 있었다는것을 몰랐다. 잘못것은 왕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살리고 왕을 쳐버리셨다. 경우에 안 맞는 일을 하셨다. 아브라함이 잘못한것이다.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권세이다 참 놀랍다. 처음 들었을때는 첫째는 놀랐고 둘때는 까마득히 몰라썼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읜 절대로 불합리한 일을 한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왕과 윤리적인 계약을 한것이 아니다. 죽어가는데 윤리 따지는게 아니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하이 포지션에 있는 것, 인간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숭고한 헌신 십자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왕을 막아서 왕을 축ㄷ복하는 거이다. 저는 이 권세를 누림녀서 응다을 받는 것도 있다. 스토리가 길어서 나중에 하겠다. 언약대로 되었다 아브라함의처럼 2-3절의 언약대로 된것이다. 불싶앙중에 있어도 그 지역에 복음화 디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다 합쳐도 아브라함 못이긴다. 그보다 더 큰것 믿음의 조상, 약속하면 그대로 다 된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능가할 사람없다.

결론 -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1)말씀이 들어와 언약이 되어야 한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사단이 살아있어 내가 다른것 더 좋아하는 이유 사란디 살아 있어 말씀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 하는 중에 말씀 한마디가, 렘넌트 7명이 이 말씀이 들어오ㅛㅆ깅 그러헥 된다.
2)요게벳 - 말씀이 무엇인지 - 여기서 인본주의 쓰면 모세도 자기도 다 죽는다.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세계복음화 한것이다. 다윗도 그렇게 모세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3)언약 전달만 하면 된다. 이것은 말씀안에 있다. -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게 말씀이다. 눈이 열리면 시작할 수 있다. 안그러면 시작이 안된다. 시작이 하고 싶은 마음도 안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 말씀을 듣는 것이다. 어느날 단어 하나가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듣는것이다. 이번 주간에 새일이라는 말씀으로 살기를 바란다.
연말에 감ㅅ가하고 회개도 하고 언약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주셨으니 언약이 되게 하옵시고 응답을 위한 완변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큰 응답으로 증인되게 하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중요한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전성도 집중 기도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살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다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